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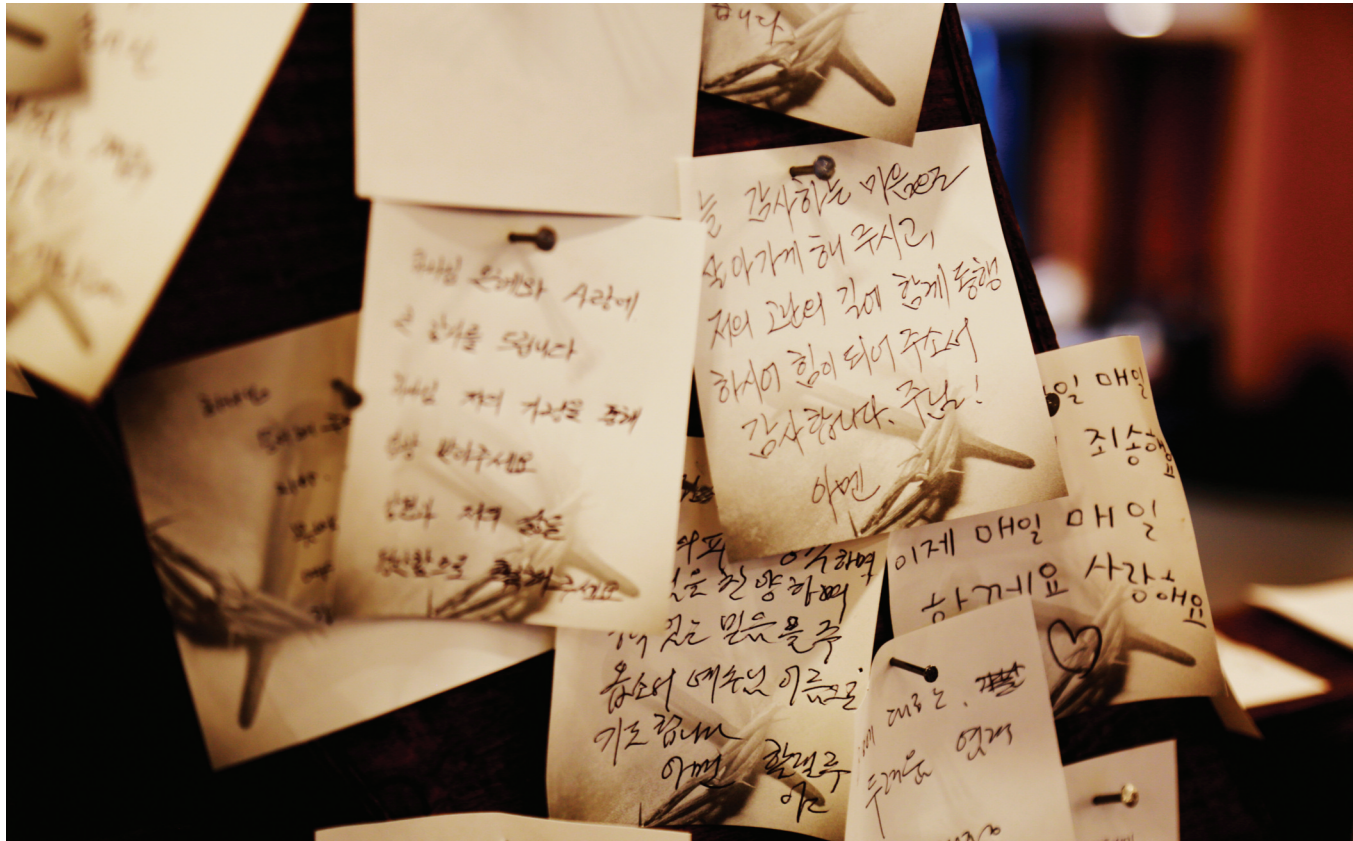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3월 24일(주일) 제1484호



사진은 지난해 회개의 십자가에 박힌 성도들의 기도제목.

환경 지키고, 생명 나누는 온누리!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생명나눔의 기적

온누리교회가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탠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 과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은 가정과 일터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하고, 장바구니, 텀블러, 다용도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3월 30일(토)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면 된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다음 사진으로 기록하면 된다.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참가 소감문을 받는다. 4월 7일(일)까지 캠페인 기간에 찍은 사진과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을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A4용지 한 장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5월 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은 성도들의 헌혈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전국 147개 교회와 5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도 1,471명이 헌혈을 시도했고, 937명이 완료했다(3월 22일 기준).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면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고, 이재훈 위임목사의 저서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를 선물로 보내준다.

/ 홍하영 기자

십자가의 증인들!

3월 25~29일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 목걸이, 금식기도, 회개의 십자가 의식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십자가의 증인들'이 시작된다.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CGN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설교한다. 25일(월) '〈누가복음〉 22장 1~6절', 26일(화) '〈누가복음〉 22장 39~46절', 27일(수) '〈누가복음〉 23장 13~25절', 28일(목) '〈누가복음〉 23장 33~43절', 29일(금) '〈누가복음〉 23장 44~56절'이다.

2024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

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생명의 삶>을 지참해야 한다. 예배 전후로 침묵으로 기도한다. 매일 한 끼 이상 금식기도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도 자제한다.

고난주간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가 설치된다. 개인의 참회와 회개의 기도제목을 적은 종이를 나무 십자가에 못박고 회개하는 의식을 한다.

요일별로 다섯 가지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화요일 '생명 경시에 대한 죄(전쟁, 살인, 인종차별 등)

, 수요일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죄(환경 파괴, 동물 학대, 진화론 등)', 목요일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교회의 죄', 금요일 '거룩과 성결로 살지 못했던 개인의 죄'를 회개한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으로, 부활절 하루 전 일주일이다. 성도들은 이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헌신, 사랑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고난주간은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 개최

3월 28일~4월 11일 19시 30분

사회선교본부 '원더풀 라이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60세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하단 QR코드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에서는 3월 28일 김형석 명예교수(전 연세대 철학과)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4월 4일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 '초고령 사회의 모습과 역할', 4월 11일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감사와 비전'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3215-3434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결과

성도 1,214명 동참, 약 3억1천만 원 약정

2024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행사에 온누리교회 성도 1,214명이 동참해서 약 3억1천만 원을 약정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금은 긴급구호와 난민 지원, 더멋진마을 조성, 다음세대 희망심기, 취약계층 생명살리기 등의 사업에 사용한다.

아직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하단 QR코드로도 동참할 수 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NGO 더멋진세상 후원을 약정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 성원에 힘입어 NGO 더멋진세상은 더 많은 나라와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02-2271-2248

/ 홍하영 기자



후원 QR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전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단체나 무자비한 독재자들의 출현, 그리고 거짓된 이념을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들, 이 모든 악의 흐름 이면에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한 거짓된 악이 존재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행위 이면에도 독이 있는 무서운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도 왜곡된 믿음, 독이 있는 믿음이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테러집단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독이 있고, 악하고, 잘못된 믿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독이 있고, 악하고, 잘못된 믿음을 세밀하게 지적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17~18절).

그들의 시기심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겉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로마 황제를 모독하며 반란을 일으킨다는 죄명을 씌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라는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이유로 포장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백성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고, 믿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정치권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자신들의 시기심을 종교의 이름으로, 이념의 논리로 포장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구나’”(28절).

마지막 부분의 ‘이 사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말입니까? 사도들은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라며 진실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불의한 재판과 빌라도의 정치적 압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한패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바리새인들도 동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움찔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도 전통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전하니까, 그들의 주장과 이념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를 지탱했던 것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며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

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념이 무너지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덮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시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자신들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을 절대화하려고 핍박을 행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독이 있는 믿음, 잘못된 믿음,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는 믿음과 대조적으로 사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용기로는 당시 사탄의 종노릇하는 권력자들의 위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사회적인 정의의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곧 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악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모두 발발 떠는 시대에 그들 앞에서 담대한 뿐만 아니라 받는 핍박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29~32절).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핍박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주어진 걸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쓰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삶 속에서 때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생명의 물줄기인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땅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고, 인간관계를 고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선택할 때 그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었습니다. 증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이 전해짐으로 회개와 죄 사함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둘째,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20절).

그들이 성전에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은 새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새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

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고, 언젠가 죽음을 맞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는 두 가지 질문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들을 절제시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존경을 받았는지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인도합니다. 두 가지 역사 사례를 제시하며 절제시킵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38-39절).

참된 지도자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가말리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폭력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이라면 시간이 흘러 갈수록 실패하고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분명히 성공할 것인데 선불리 나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36절에서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400명까지 따랐지만, 모두 뿔뿔히 헤어지지

않았냐고 하고, 37절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많은 추종자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또한 헤어지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내버려두면 이것이 하나님께 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의 검증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였습니다. 가말리엘의 태도가 신중하고, 다른 공회원보다는 지혜로웠지만, 그 또한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공하면 인정하고, 실패하면 해결되는 것이니 내버려 두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성공이라는 방법은 세상적인 지혜일뿐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판단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가도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는 종교와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쇠퇴하는 일들도 있지만, 악의 세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가말리엘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진정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낮지만, 그것 또한 핑계였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면 압니다.

첫째,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은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적과 표적, 천사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노력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이 인정하고, 사도들의 말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둘째, ‘지금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핍박 받고 죽음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마 5:11-12).

그들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하는 이들과 함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까”(41-42절).

그들은 모욕과 핍박을 기뻐하고,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역사요,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타류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이웃을 구제하는 모든 일이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생명의 물줄기인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교육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교육의 길을 묻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 왔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 볼 때도 기독교는 진로 결정과 교육 경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평생의 업이 되고, 미래 방향이 될 수 있는 전공을 결정하는 고3 시절이었다. 담임선생님이 내 부모님이 기독교 인임을 아시고 사회사업학과(현재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권하셨다. 여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전공인데 교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한 분야라는 설명을 듣고 그 전공을 선택했다.

내 첫 직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1921년 설립되었는데, 당시 남감리회 여성교회에 모아 준 헌금으로 종로에 있는 순화궁을 사들여 개조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교육, 선교, 사회사업을 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교육 그리고 위생과 영양 상태가 나빴던 어린이들의 건강한 양육 등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며 근대 한국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초기 관장들은 벽안(碧眼)의 선교사들로 우리나라의 교육, 사회복지, 보건 의료 영역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었다.

기독교가 교육을 통해 사회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지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 지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믿음을 위한 기초가 되어왔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들은 매우 높은 영성을 가진 동시에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다. 이집트의 문물을 배운 요셉, 왕자 신분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모세,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왕궁의 교육을 받으며 대제국의 총리를 담당했던 다니엘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동안 기독교 교육이 교육의 정의적(affective)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 교육학자인 크래쓰웰(Krathwohl)은 교육의 정의적 영역을 설명하면서 내면화의 원리를 따라 교육이 이뤄지는 다섯 단계를 설명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 있다.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수용단계,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반응단계, 몸이 아프고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하는 가치화 단계, 일상의 다차원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및 통합하는 조직화 단계를 거쳐 성경적 사고와 반응이 일관되게 내면화되어 성격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주일학교 교육, 기독교 가정 교육, 성인을 위한 예배와 소모임 등이 모두 이 원리를 실현해 왔다.

가르쳐줄 선생님도, 학교도, 교재도 부족해서 기독교 선교단체와 교회의 지원 없이는 사회가 계몽될 수 없었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지식인들이 만든 전달력 좋은 유튜브 채널이 알고 넓은 지식에서부터 깊고 심오한 지식까지 전달해주는 시대가 왔다. Chat GPT를 위시한 첨단 인공지능이 단 몇 초 만에 필요한 정보를 유려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 분석까지 해주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이 세상의 변화,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적 해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이 되어 있을까?

미국의 사회적 이슈와 대중의 인식, 인구사회적 변화를 조사하는 명망 있는 비영리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동일한 연구를 세 번의 시간대에 나눠 수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과학자 1천 명에게 신(기독교의 하나님 또는 초월적 존재)을 믿는지를 1914년, 1996년, 2009년에 조사했다. 1914년 첫 조사가 시작된 후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첫 번째 조사보다 신을 믿는다는 응답률이 낮아질 거로 전망했다. 그런데 세 번의 시간대 모두에서 믿는다는 응답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가 지성인들이 초월적 존재를 믿는 여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믿는다는 응답이 과학자들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초월적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변화, 세계정세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가치의 혼란이 동반된다.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묻고, 다양한 딜레마 속에서 그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요구할 것이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적 차원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더욱 발전해야겠지만, 인지적 차원에서 통합적 사고를 동원해 유연하면서도 성경의 본질을 설명하는 사고력을 기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 없이 인지적 요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 세상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분명 영적 깨달음의 도약대로서 기능한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과학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 사유의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인재들이 다양한 지식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정상원 집사
(온누리세계관학교,
강남C공동체)

특별기고

사랑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 목요일의 역할

"예수님이라면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LGBTQ 유형의 사람들을 미워한다.", "당신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어째서 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실하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되는가?", "그건 단지 너에게 진리일 뿐이지 나에게도 진리인 건 아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침묵시키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모든 슬로건은 근본적으로 진실과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 특히 성생활과 젠더에 관한 문제에서는 불친절하고 편협한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 중에는 특이하게 '기독교적인' 버전도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에서는 도덕적인 견해를 밝힌다는 게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오히려 교회가 더욱 환영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피해야 한다고들 한다. 결국, "복음은 정말 다 포용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특히 고난주간 내내 이러한 사고방식에 직접적으로 부딪칠 것이다.

'세주 목요일(Mundy Thursday)'은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기 위해 교회력에서 정한 날이다. 'Mundy'라는 단어는 '명령(mandate, commandate)'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최초의 성찬 예식을 하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새로이 명령'하셨다. 본인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손수 대야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만찬' 이자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래 명령,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다.

예수님은 오래된 기념일에 단순히 명령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셨다. 이제는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을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기억하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도록 하셨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명령은 새로운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어떻게 마침내 패배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였다.

적어도 20세기 중반부터 서구의 교회들은 '교회란 주로 진리를 선포하는 곳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곳인가?'의 문제로 분열되었다. 최근 이러한 논쟁의 빈도가 상당히 증가했다. 예수님의 만찬과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은 이것이 잘못된 이분법이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필요가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깨어진 몸과 흘린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진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날 밤 다른 사람을 섬김(사랑)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서도 안 된다. 이 둘은 모두 같은 근원, 특히 같은 분(예수님)께 기반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간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뿐 아니라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모든 일에서 진리와 사랑을 구현하셨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다.

*원문: breakpoint
논평(20220414)



존 스톤스트리트
(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엄마 아빠, 성(性)이 궁금해요!

유아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



이진아 전도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킴이 대표)

유아기 자녀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탐험을 좋아한다. 세상을 알아가는 게 행복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유아기 자녀들이 종종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라고 질문한다. 이때 부모들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유아기의 성경적 성교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아이들이 2~4살 사이 사춘기에 버금가는 성호르몬이 급증한다. 그래서 이때를 ‘유아 사춘기’라고 부른다. 아이들이 4살이 되면 무엇이든 혼자 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혼자서 옷을 입으려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때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속옷을 혼자 입을 때마다 “속옷이 가리는 곳은 소중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고, 누구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면 된다. 목욕할 때는 속옷이 가리는 곳은 자녀가 직접 물기를 닦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좋다. 4살 이후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진다. 따라서 성별을 나눠 목욕을 시키는 게 좋다. 가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다른 형제자매가 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5살은 ‘엄마 아빠 놀이’를 좋아할 나이다. 이때가 성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신 것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다.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지? 눈이 두 개, 코 하나, 귀도 두 개인 것을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어. 여자는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배 속에 아기집이 있어. 자궁이라고 하는 이곳은 아기가 자라나는 아주 소중한 곳이야.”

남자와 여자의 신체의 다른 점을 통해 성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성교육은 3살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전까지 자녀의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의 기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유아기에는 신체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유아기에 신체 기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를 가르치면 좋다. 생식기관을 포함한 신체 모든 기관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두 목적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우리 자녀는 남녀로 구별된 ‘성적인 존재’이다.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 가르치면 그때부터 아이가 성에 관심을 가진다고 여겨서 성교육을 꺼리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된 성적인 존재로 태어났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싶어한다. 4~5세는 아이들이 출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다. 이때 자녀의 수준에 맞게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해주면 된다.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을 많이 하면 엄마와 아빠의 아기씨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너는 아빠의 아기도 되고, 엄마의 아기도 되는 거야. 아빠와 엄마가 아기를 만드는 데 큰일을 하지만,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어. 아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야.”

이 대답처럼 간단하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유아기 성교육의 좋은 예다. 자녀의 태아 사진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교육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의 성숙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에 관한 관심 정도는 아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자녀

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부모가 그 자녀의 속도에 맞춰 성교육하면 된다. 성교육할 때 되도록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대답은 짧고, 정직하게 해주면 된다. 그러나 자녀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미리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

유아기 자위행위에 대해 많은 부모가 궁금해한다. 자녀가 자신의 생식기 부분을 만지거나 책상 모서리에 몸을 비비는 행동 등을 보고 부모들이 많이 당황한다. 우선 아이들이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아기에 하는 이런 행동은 대부분 심심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게 좋다. 유아기의 이런 행동은 의미를 모르고 하는 불안 해소 행동 중 하나로 보는 게 맞다. 혹은 피부 발진 등 피부 질환으로 인해 가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다. 이런 행동을 야단치면 자녀는 숨어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자녀에게 “이런 행동은 손의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식기를 만지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다. 아무리 가려워도 공공장소에서는 생식기관을 만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

유아기 성교육 책을 활용하면 아주 좋다. 성경적 성교육에 기반한 책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책이라도 ‘조기 성애화(아동기에 성 지식을 많이 알고 성적인 행동을 경험하는 것)’를 유도하는 책은 아주 위험하다. 아이의 수준에 맞춘 적절한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으로 자녀의 성기치관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2편 유아기 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1)



성경 QUIZ



1.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아래글을 읽고 맞게 연결된 것을 골라보세요.

- 1)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절기
- 2) 부활절 하루 전 일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금식하고 절제함
- ① 부활절-고난주간 ② 사순절-성찬식 ③ 사순절-고난주간 ④ 부활절-성찬식

2. 올해 종려주일(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은 3월 24일이예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는 게 좋아요. 친구들은 고난주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지 나눠주세요.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독후감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담은 <천로역정>을 읽었다. 이 책에서는 악한 존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어서일까? 왜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시기도 했고, 가끔 싸우지만 회개하는 모습이 예뻐서인 것 같다. 하나님과 우리는 엄마와 아이 사이 같다. 엄마와 아이가 크게 싸웠을 때 엄마는 정말 화가 난다. 하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다.

인상 깊었던 것은 초반 주인공 크리스천이 등집만 벗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려고 해서 하늘나라는 뒷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신앙, 하늘나라를 중시했다는 점이 다. 나도 옛날에는 참 순수하고 모든 걸 믿어서 신앙이 지금보다 나왔다. 하지만 7살이 되고, 학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에 집중하면서 신앙이 뒷전이 되어버렸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 매일 QT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이제는 안 든다. 또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거리의 성에 갇혀 있을 때, 크리스천이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약속’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약속

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열쇠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려움을 없애 주시니까 말이다. 책을 읽고 하나님은 악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그렇다고 용서하는 하나님을 너무 믿고 죄를 막 짓지는 않기로 다짐했다. 또 나의 행동에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겠다. 그러다가 지쳐서 학업은 물론이고, 신앙까지 포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하경 학생
(서빙고 초등1부)

성경 읽는 재미, 제대로 알게 됐다!

‘공동체 성경읽기’ 첫 번째 개별모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 바로 ‘성경 읽기’다. 그런데 혼자 성경을 끝까지 읽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엄두도 못 낸다는 성도들도 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지치지 않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공동체 성경읽기’가 그 해답이다. 공동체 성경읽기 첫 번째 개별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공동체 성경읽기’ 첫 번째 개별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

“성경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열린 ‘공동체 성경읽기’ 첫 번째 개별모임에서 만난 성도들이 한목소리로 고백했다. 40분 성경을 들으면서 읽고, 20분 나눔하고, 30분 신앙서적 들으면서 읽고, 30분 나누고, 식사 교제를 했을 뿐인데 간증이 풍성했다. 혼자 성경 읽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함께 성경과 신앙서적을 들으면서 읽고, 나눔과 식사 교제까지 더해지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했기 때문이다.

일단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 참석자들의 표정부터 달랐다. 기대감과 설렘이 엮여 있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눈에 보였다. 웅기종기 모여 나누는 담소의

주제도 ‘말씀’이었다. 그 기대감과 설렘이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져 덩달아 신이 났다.

그런데 어떻게 첫 모임부터 참석자들의 마음을 이토록 빼앗을 수 있었을까?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혼자 성경 읽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읽는 것 자체가 달랐다. 머릿속에 성경 속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다. 그 덕분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에 몰입했다. 성경 읽는 재미를 제대로 알게 됐다.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에는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신앙서적을 들으면서 읽고, 나누는 시간이다. 첫 모임에서는 존 스토틀의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듣고 읽었다. 딱딱하게만 느껴

졌던 신앙서적이 함께 들으면서 따라 읽었더니 술술 읽혔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서 유난히 밝은 얼굴을 보이는 성도가 눈에 띄었다. 이현주 성도(S브릿지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그동안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새롭게 배우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다고 했다.

“혼자 성경을 꾸준히 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면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신앙서적도 함께

듣고 읽으면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나눔을 듣는 재미도 아주 좋았습니다.”

유정원 성도(서대문공동체)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크게 유익했다고 말했다.

“매번 성경일독을 다짐하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해서 읽기보다 자꾸만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니까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성경 읽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혼자서는 질 일도 돌이키는 당해 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성경 읽기가 공동체와 함께하면 즐겁게 할 수 있다. 강신의 장로가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혼자 성경 읽기가 몹시 힘듭니다.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새벽기도회, 개별모임, 순에서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모임에 참석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의: 02-3215-3239

목회칼럼

‘확신’과 ‘겸손’이 성경을 함께 읽게 한다!



변대섭 목사
(공동체성경읽기 담당, 성북공동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시하는 책이다. 소위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 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역사, 자연을 통해 절대자의 존재를 막연하게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절대자가 어떤 존재인지, 성품이 어떠한지, 역사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이어야 한다. 그것이 특별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이 측면에서 성경은 결코 일반적인 도서가 아니다.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책’이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경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고 온전히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책’이다. 바울은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고 말했다.

고대부터 이스라엘은 성경을 함께 읽는 전통이 있었다. 회당에서는 구약 두루마리를 펼쳐서 낭독하고, 이를 함께 듣는 게 중요한 순서였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약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강조됐다. 물론 설교와 강해도 있었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는 것이 절대 경시되지 않았다. 말씀 자체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사람의 그 어떤 해석보다 우선시하는 건강한 신앙적 문화가 교회사에 존재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결국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한마음으로 받들고,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알아간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받는 은혜가 저마다 다름을

나눔을 통해 확인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경험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같은 본문을 묵상한 큐티를 나누고, 예배에서 같은 말씀을 함독하는 것은 말씀이 갖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한 결과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적으로 ‘미디어 홍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가 있고, 접근이 매우 편리해졌다. 오히려 들은 메시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때 공동체가 성경 앞으로 모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유일한 계시였다.

이를 독려하고 함께하는 게 바로 ‘공동체 성경읽기’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을 공동체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독려하며, 받은 은혜를 나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읽지 못해도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으면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분을 알아가는 거룩한 걸음을 위해 우리의 발목을 서로 묶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공동체가 협력해서 성경을 읽는 운동을 일으킬 때

생명력 넘치는 성령공동체가 될 것이다.

각 공동체와 순,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 금요일 개별모임에서 공동체적인 성경읽기를 함께하고 있다. 말씀 앞에 모인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이다. 성경통독을 몇 번 했든, 성경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든, 큐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실함과 새로운 기대로 엎드리는 성도가 ‘공동체 성경읽기’에 함께 한다. 혼자 하면 된다고 자신하는 성도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개인적인 습관이 잡혀있는 분들이 겸손하게 함께 성경 읽는 자리로 나온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분을 계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 말씀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라는 확신,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혼자서 경건의 능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겸손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화관 만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함께,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평택 화관팀’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주인공은 ‘평택온누리교회 화관팀’(이하 평택 화관팀)이다. 평택 화관팀은 오는 5월 열리는 러브소나타 ‘효고’에서 사용할 화관을 제작하고 있다. 스무 명 남짓 성도들이 일본 복음화를 꿈꾸며 화관을 제작하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평택 화관팀을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일본 복음화를 꿈꾸며 기쁨으로 러브소나타 화관을 만드는 ‘평택온누리교회 화관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 ♪”

평택온누리교회 5층에서 맛있는 냄새와 익숙한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평택 화관팀이 있었다. 스무 명 남짓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흰색, 보라색, 초록색의 예쁜 조화를 엮어 화관을 만들고 있었다. 곳곳에 흐드러진 알록달록한 꽃들과 평택 화관팀원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이 어우러져 꽃동산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맛있는 냄새가 향기가 없는 조화에 기분 좋은 냄새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았다. 평택 화관팀이 있는 자리는 분명 하나님과 뛰노는 꽃동산이었다.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평택 화관팀은 오는 5월 15~16일 막 오르는 러브소나타 ‘효고’에서 사용할 화관을 만들고 있다. 화관 제작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일 중 하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일본의 영혼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섬기고 있다.

화관 만드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글루건(Hot Glue Gun)이 내뿜는 뜨거운 열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반복 작업을 오래 해서 손가락 지문이 닳기도 한다. 20여 명이 화관 2천 개를 만들기에 제작 기간도 길다. 몸도 고되고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찬양과 미소,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송현주 집사는 평택 화관팀에서 섬기기 전까지 러브소나타를 잘 알지 못했다. 온누리교회가 일본에서 여는 큰 집회 정도로만 생각했다. 우연한 기회에 평택 화관팀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버렸다.

“평택 화관팀에서 하루만 일해보면 ‘와!’라는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또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웅기증기 모여 앉아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며, 화관을 만드는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꼭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평택 화관팀이 모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박은화 집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박 집사도 함께하는 기쁨에 빠져 2년째 평택 화관팀에서 섬기고 있다.

“당연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매주 이틀씩 새벽부터 오후까지 작업하려면 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피를 내서 ‘하루 정도는 빠져볼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평택 화관팀에서만 경험하는 기쁨이 정말 커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화관을 쓰고 예수님을 만날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옵니다. 평택 화관팀은 그 기대와 감격을 함께 나누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색해도 묵묵히 섬기는 은혜

평택 화관팀에 어렵고, 힘들고, 어색한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김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임선명 집사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두렵고 우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고 평안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술 날짜가 바로 잡혔고, 수술도 잘 끝났다. 임선명 집사의 빠른 회복에 의료진이 놀랄 정

도였다.

임선명 집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암 환자라 치료 경과를 살펴야 하고, 항암치료 등을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장기적인 사역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평택 화관팀이 떠올랐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던 평택 화관팀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평택 화관팀에 돌아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정말 좋았기 때문이다. 일본을 향한 선교의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평택 화관팀에서 섬기다 보면 화관의 꽃송이가 의미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각자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도 커집니다. 러브소나타를 사모하게 되고, 그곳에 모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한경진 집사는 평택 화관팀에서 ‘한 권사’라고 불린다. 여자 성도들 틈에 남자 혼자 끼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칭찬하며 붙여진 애칭이다. 한경진 집사는 아직 러브소나타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화관팀원 모집 소식을 듣고 관심이 생겼다.

“사실 화관을 제작하는데 제가 할 일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심부름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평택 화관팀에 왔습니다. 저 혼자

남자라 살짝 후회도 했지만, 무르키에는 이미 늦었더라고요(웃음). 어쩔 수 없이 섬김을 시작했는데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경진 집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꽃을 예쁘게 붙이는 일은 어려워도, 짐을 나르고, 장을 보고, 풀을 엮고, 화관 쌓는 일은 도맡아 할 수 있었다. 어느새 평택 화관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경진 집사에게도 평택 화관팀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미녀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를 듣는 것도 꽤 재미있습니다(웃음). 그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 복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러브소나타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섬김을 낳고 ...

평택 화관팀장 김성옥 권사는 12년째 러브소나타 화관을 만들고 있다. 올해 나이 76세다.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기쁨으로 꾸준히 섬기고 있다. 고속터미널 꽃시장에서 직접 꽃을 고르고, 일정을 조율하고, 매주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화관을 제작한다. 김성옥 권사의 섬김에 감동해서 평택 화관팀을 찾아온 성도가 한둘이 아니다.

섬김은 섬김을 낳는다. 김순분 권사도 김성옥 권사의 섬김에 감동해서 평택 화관팀을 찾아왔다. 그 추운 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이후 평택 화관팀의 식사는 김순분 권사가 책임진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등갈비찜, 짜장밥, 굴만두국, 묵은지 김치찌개 등 메뉴도 다채롭다. 평택 화관팀 성도들이 “김순분 권사님 음식 먹으려고 매주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빼어나다.

“다들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작은 섬김에도 큰 기쁨을 돌려주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동참하면 기쁨을 배로 경험하게 됩니다. 평택 화관팀의 섬김을 보고 더 많은 성도가 러브소나타에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화관을 쓰고 예수님을 만날 일본의 영혼들이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브소나타 화관의 의미

중앙 흰 꽃 3개: 성부, 성자, 성령
보라색 꽃: 회개
흰 꽃: 구원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사회선교사’

사회선교본부가 걸어온 지난 10년 그 이야기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2024년은 온누리교회가 ‘사회선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10주년 되는 해다. ‘사회선교’라는 명칭은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사용했던 이름이다. 온누리교회는 헌금의

1/3을 선교와 공화사역에 사용하겠다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구제봉사 주일’로 지키면서 먼저 교회 내의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 교회 밖에서는 개척 초기부터 사조동 꽃마을 화재민 600여 명을 돕는 사역을 필두로 공화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섬길 곳을 찾고 있었다.

1991년 3월, 군포 청소년쉼터 ‘하나로’를 오픈했다. 하나로라는 당시 가출 청소년이 숙식하면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어둠의 굴로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이 방향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빛과 소금의 현장이었다. 많은 성도가 자원해서 청소년들에게 과목별로 공부를 가르쳤다. 하나로라는 온누리교회가 정식으로 교회 밖 시설을 준비하고 운영한 첫 번째 대외사역이었다.

1992년부터 사회선교 명칭을 ‘공화사역’으로 개명했다. 1993년에는 신림7동에 ‘열린 이웃’을 오픈해서 오늘날 방과 후 공부방 같은 역할을 했다. 열린 이웃 역시 가난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역할을 했다.

1989년 故 하용조 목사님과 몇 분의 일행이 뉴욕 맨하튼을 방문했다가 천주교 수사들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현장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귀국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도했다. 수년이 지나 하나님이 어느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 1994년 8월 효창동에서 시작된 ‘예수향기회’가 바로 그 사역이었다. 당시 용산구 효창동에는 무의탁 노인이 다수 살고 있었다. 노인들에게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전도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7년 동안 40여만 명의 노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때 터득한 대형조리 실력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빛을 발휘했다. 온누리교회가 가장 먼저 현장에 배이스캠프를 차리고, 6일 동안 자원봉사자 230여 명이 참여해서 구조대원 2천 명분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했다. 그 이후에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온누리교회가 개척



“사회선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회선교사’가 배출되기를 원한다.”

때부터 가졌던 공화사역에 대한 비전을 한 가지씩 이루어 가셨다.

사회선교의 그 의미

故 하용조 목사님의 후임으로 온누리교회 2대 영적 리더가 된 이재훈 위임목사님은 공화사역에 큰 변화를 줬다. 먼저 2014년 ‘공화사역’이라는 명칭을 다시 ‘사회선교본부’로 개명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면서 단순히 공화이라는 이름으로는 품을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가출 청소년, 독거노인, 노숙자,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 교회가 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는 더 큰 그림의 명칭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사회선교본부’였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사회선교’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선교란 구제봉사나 공화 사역의 개념을 넘어서 스스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좋은 관계를 맺고, 돌보아 주며, 때로는 필요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은 사회선교의 성경적 근거로 <미가> 6장 8절을 제시하셨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네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공화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미 6:8).

공의를 지키고 사랑으로 공화를 베풀되,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사회선교라는 것이다. 사회선교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추구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공의와 공화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wig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둘째, ‘온누리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선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실천하고, 공화를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 인식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 의식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wig는 것이다.

사회선교의 네 가지 원칙

온누리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선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안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해왔다. 첫째, 사회선교는 섬김의 대상자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먼저 관계 맺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부여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뢰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 배운 것이다. 예수님이 종종 만나셨던 사람들은 오늘날 표현에 의하면 사회선교 대상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분이나 생활환경과 상관없이 당신이 죄의 짐을 대신 져줘야 할 귀중한 영혼으로 대하셨다.

둘째, 사회선교는 단독으로만 사역하지 않는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정부 기관이나 구청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를 풀어 가기도 하고, 타 교회나 선교 단체와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기도 한다. 사회선교 본부에서도 사역팀끼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협력하고 있다.

셋째, 사회선교는 성도들만 상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불신자도 섬김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거에는 전도를 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로 오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사역 팀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선교는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사회선교도 성육신적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성육신적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중 하나가 ‘1다락방1사역’이다.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개인이나 가정, 혹은 미자립 교회나 봉사 단체를 섬김 대상으로 삼고, 관계 맺기를 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1다락방 1사역이다.

넷째, 사회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선교 팀원들이 하는 일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는 것이다.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이다. 이웃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찾아온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의 진심이 담긴 섬김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사회선교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는 사역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적 역사가 체험되는 성령사역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사회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세wig는 사역이 되기를 원한다. 복음 들고 해외로 파송 받아 나가는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다. 사회선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회선교사’가 배출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28주 동안 하나님이 지난 세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각 사역팀의 대표를 필진으로 섭외해서 기획 연재를 하려고 한다. 더 많은 성도들이 사회선교본부 각 사역팀의 사역과 비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문의: 02-3215-3434

이제는 ‘연령통합적’ 사회와 교회!

연령 개념의 이해와 ‘연령분절적’ 사회모델의 한계



김영석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강촌공동체)

2025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인구변화와 함께 교회의 60대 이상 인구 비율 역시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국민일보>의 한 기사(2023.3.23)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서 2023년까지 꾸준히 5~6% 높았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높아지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령의 개념과 연령차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로 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또는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복지 혜택이 65세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고 있다. 노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령은 네 가지로 나뉘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념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역연령(曆年齡)’ 또는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이다. 시간상 발생하는 연령이다. 역연령은 일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령의 개념으로 음주, 운전, 투표 등의 법적 연령 기준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 개념은 ‘신체적 연령’ 또는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이다. 신체적 건강 수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연령이다. 흔히 사용하는 ‘몸짱’ 혹은 ‘몸짱’이라는 단어가 신체적 연령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념은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이다.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나이로, ‘애 늙은이’, ‘철이 덜 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심리적 연령을 의미한다. 네 번째 개념은 ‘사회적 연령(social age)’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역연령(曆年齡)에 적합한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어떤 50대인 사람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잇값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회적 연령이다.

이처럼 연령은 다양한 뜻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을 역연령(曆年齡)으로만 판단해서 그 사람의 나머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연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때로는 이해하지 않으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차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부색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려는 태도를 인종차별(racism)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연령차별(ageism)이 존재한다. 영국의 노년학자 콤포트(A. Comfort)는 연령차별을 ‘여러 해 동안 살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자.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를 맡길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서 은퇴한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를 며칠 동안 돌봐달라고 했다. 이때 만약 조부모가 현재 대학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으므로 손자녀를 돌볼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공부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출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비난할 것이다. 이러한 조부모에 대한 비난이 성인은 노동, 노년은 여가라는 연령 규범이 낳은 연령차별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먼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려 다양한 사역을 하는
‘연령통합적’ 모습을 보일 때
사회에 모범이 될 것이다.”

았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을 열등하고 별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신념’이라고 정의했다.

연령차별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연령 규범(age norms)이다. 즉, 특정한 역연령대(曆年齡代)에 부합하는 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연령차별이 발생한다.

물론 연령 규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이 연령 규범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의식이다. 그러나 연령 규범이 연령차별이 되어서 일부 연령집단(특히 고령자 집단)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막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없어야 할 인식이다.

‘연령분절적(age-segregated) 사회모델’은 유독 노인에게 분리한 연령 규범을 적용해서 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막는 경우가 발생

연령통합적 사회와 교회의 비전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신분제도가 타파되면서 점차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교육 및 근로의 기회가 주어졌다. 근대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기는 교육, 성인기는 노동, 노년기는 은퇴 및 여가라는 역연령(曆年齡)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구분하는 연령분절적(age-segregated) 사회 구조를 이루고 살아왔다. 인구 수명이 길지 않던 과거에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성인이 되면 일하는 게 바람직했다. 아울러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동자들이 퇴직하는 게 바람직했다. 실제로 전 세계 국민연금제도의 최초 모델로 여겨지는 독일의 제1차 비스마르크가 1883년 제정한 독일의 연금제도는 당시 독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연금 지급 나이를 65세로 정했기에 연금을 통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 연령분절적 사회 구조의 한계는 연령을 기준으로 교육, 일, 여가 등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체, 인지, 심리적 역량 및 욕구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역연령만으로 특정한 사회 활동으로부터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사회구성원들의 수명이 짧지 않다. 따라서 연령분절적 사회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연령분절적 사회모델에 대척점에 있는 사회가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사회모델’이다. Riley라는 학자가 2000년 교육, 일, 퇴직이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회인 ‘연령통합적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연령통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자유 및 역량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연령대가 함께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일, 퇴직 등의 기회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연령통합적 사회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통합적 사회구축을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사회제도(교육, 고용, 의료 등)의 연령통합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연령분절적 제도와 인식이 남아있다. 아동·청소년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성인과 중장년은 사역에 힘쓰며, 60대와 70대는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지현 교수는 2023년 6월 발간된 <장신논단>에서 연령통합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령의 기준을 유연하게 뒤서 나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성도들이 사역, 봉사, 교육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지현 교수는 교회에서 다양한 연령집단이 예배와 교제, 교육과 사역을 함께할 기회를 통해 다른 연령집단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시 133:1).

한국 교회가 먼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려 다양한 사역을 하는 ‘연령통합적’ 모습을 보일 때 사회에 모범이 될 것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0:34)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를까?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지칭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신’에 대한 논쟁을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유대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동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이를 들은 유대인들은 인간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에 분노한다. 유대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돌로 치는 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논증으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방어하신다.

첫 번째 논증은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시 82:6).

<시편> 82편 6절의 내용은 부정한 재판에 대한 경고다. 재판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그만두고, 가난한 자와 죄 없는 자들을 옹호하라는 권고의 말씀이다. 재판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공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된 자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 것이다. 이 생각은 <출애굽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노예는 7년째마다 풀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출 21:6 a).

여기서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다.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특정한 사명을 위임받는 사람을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님은 성경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내가 나에 대해서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두 번째 논증은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요 10:36).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재판관들처럼, 예수님은 진리와 정의,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 기초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압도적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었다. 랍비들은 그동안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반론을 해 왔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신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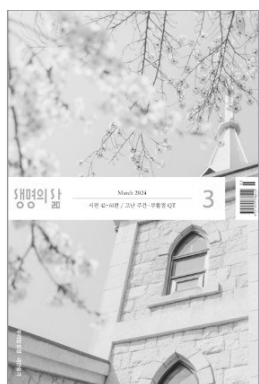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고난의 십자가, 사랑의 완성

3월 25~31일
고난 주간, 부활절 QT



목상포인트 1:

고난 주간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묵상하는 교회력 절기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와 혐오의 상징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쓴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묵상하자.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그들과 약속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감람 산(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가롯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신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지만, 결국 무리의 요구에 굴복해 내어 준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

신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명이 회개하자 예수님이 그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신다. 대낮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예수님이 숨지신다. 이를 본 백부장이 예수님이 의인이셨음을 고백한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새 무덤에 두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장례에 쓸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다.

목상포인트 2: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전적 패배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살길이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내적, 외적 변화를 묵상하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원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즐거워한다.

목상포인트 3: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대속의 사명을 성취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멸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 나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고, 증

인의 삶에 대해 묵상하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간다. 돌이 굴러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여인들이 근심한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여인들은 이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는다. 베드로가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일을 놀랍게 여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일터 등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적용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록하고 실천하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장소는 제자들의 순종으로 마련되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 말씀이면 순종하기로 다짐하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라는 중대한 사명 앞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기도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보자.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내게 억울함과 괴로움을 안겨 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부활의 예수님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가? 부활절을 전도 기회로 삼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국내 아랍인들을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한국에는 1만여 명의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와 안산M센터에서 그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M센터에서는 한국인 봉사자 8명이 매주 아랍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인들의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이슬람과 그 가치관을 깨뜨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랍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아랍인을 섬기는 온누리교회 선교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매주 드리는 주일예배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넘쳐서 아랍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바르게 알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매주 아랍인들을 심방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섬길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랍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심방사역팀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안산M센터 아랍어예배가 한국인들만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아랍인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슬람의 진을 깨뜨릴 거라 믿습니다.

/ 신지환 형제(안산M센터)

THE 행복한 3040 맞춤전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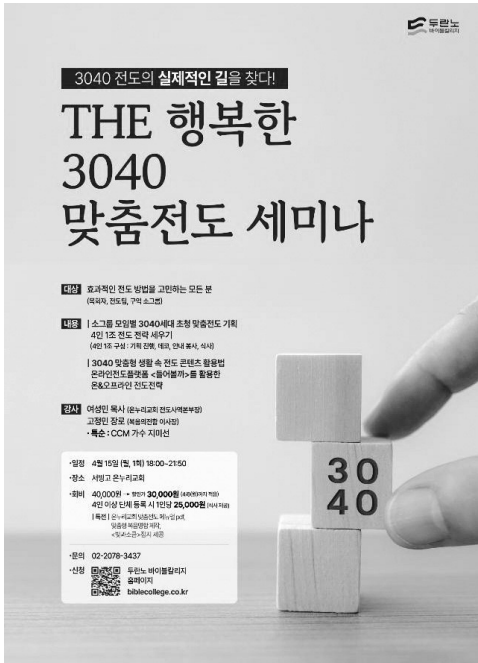
4월 15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3040세대 전도의 해답을 얻는 세미나가 열린다. 4월 15일(월) 오후 6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THE 행복한 3040 맞춤전도 세미나’가 그것이다.

THE 행복한 3040 맞춤전도 세미나에서는 ‘소그룹 모임별 3040세대 초청 맞춤전도 기획’과 ‘3040세대 맞춤형 생활 속 전도콘텐츠 활용법’ 등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4인 1조 전도 전략(기획 진행, 데코, 안내 봉사, 식사) 세우는 방법과 온라인전도플랫폼 ‘들어볼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전도 전략을 배운다. 3040세대를 전도하고 싶은 목회자, 전도팀, 구역 소그룹이 대상이다. 강사는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고정민 장로(복음의 전함 이사장)가 하고, CCM 가수 지미선이 특순한다. 회비는 4만 원. 4월 8일까지 등록하면 3만 원, 4인 이상 단체등록하면 2만 5천원이다.

문의: 02-2078-3437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 4월 개강

공동체별 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

공동체별로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는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가 4월 개강한다.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는 성경 통합교재 <가스펠프로젝트>를 온누리교회에 맞춰 구성된 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다. 소속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인도자를 포함해서 5명 내외가 모여 성경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연대기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

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총 12권(구약 6권, 신약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별로 구약 1권 ‘위대한 시작’, 구약 2권 ‘하나님의 구출계획’, 구약 3권 ‘약속의 땅’, 구약 4권 ‘왕국의 성립’, 구약 5권 ‘선지자와 왕’을 주제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참가신청과 문의는 각 공동체 양육담당 총무에게 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故 박누가 선교사 다큐멘터리 방영

3월 25~26일 오후 6시 40분 CGN 채널

CGN이故 박누가 선교사(본명:박병출)의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를 기념하며 다큐멘터리를 편성 및 방송한다. 3월 25일과 26일 오후 6시 40분 CGN TV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5일 ‘땅끝의 증인들’, 26일 ‘사랑하기 때문에’를 방영할 예정이다. CGN 유튜브 채널과 기독교OTT ‘풍당’에서도 볼 수 있다.

故 박누가 선교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인물이다. 체장암, 간경화, 위암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필리핀에서 30년 넘게 의료봉사를 하다가 2018년 8월 6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지난 3월 15일故 박누가 선교사에게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요양센터 어르신 세례식

온누리요양센터 세례식이 지난 3월 21(목) 있었다. 김정자(79세), 김진영(82세), 박인수(91세), 송석주(96세), 최춘연(78세), 하기자(85세) 어르신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은 송석근 목사(양지온누리교회)가 집례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박인수 어르신의 자녀는 “어머니가 기쁘고 복된 세례를 받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매주 CGN을 통해 목요일과 주일에 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세례식을 열고 있다. / 김현준 기자

온누리 전문인 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3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름’

온누리 전문인 선교학교가 3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한성대학교 에듀센터 3층 ‘이름’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성도 또는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4월 5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성도 20만 원, 청년 10만

원이다.

온누리 전문인 선교학교에서는 ‘온누리선교론’, ‘전문인선교사의 형성’, ‘비즈니스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조별나눔과 사례 연구, 영역별 활동도 한다.

문의: 서빙고(010-8932-9901)

양재(010-2270-2800)

260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4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신길교회

260기 결혼예비학교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신길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기 원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

260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너와 나, 다름의 축복’, ‘신혼, 재정의 첫걸음’, ‘하나 됨의 비밀, 성’, ‘건강한 자아상’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078-3263

241기 순장학교 수강생 모집

서빙고, 양재 3월 31일 개강

241기 순장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순장학교는 3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5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양재 순장학교는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드림홀에서 열린다.

다. 참가신청은 3월 30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순장학교는 순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을 섬기도록 돕고, 순원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서빙고(010-7736-6130)

양재(010-4172-0850)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양재 JDS홀, 충성홀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4월 13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어린이 10만 원, 부모 5만 원이다.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서는 ‘나

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감정 알기 및 표현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미술과 놀이 등 예술 매체를 활용한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조손가정도 함께 초청한다.

문의: 010-4528-0477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4월 13일~5월 18일 인천 믿음홀

이주민선교학교 2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이주민선교학교 20기에서는 ‘결혼 이주민 여성 이야기’, ‘성경에 나

타난 다문화 가정’, ‘성장기 다문화 차세대’,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역파송 사회 통합의 관점’, ‘이주민 500만 시대’ 등을 주제로 전횡렬 선교사, 고원귀 선교사, 김연경 선교사, 류영민 선교사, 노규석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5780-8410

3월 세례자

■서빙고
김지현 761224
박선혜 800103
백상훈 761115
조장섭 650929
입교
강주영 040617
장진희 881124
유아
구도윤 220126
구동현 김미선
김 윤 230407
김정수 정혜윤
김하준 171229
김형주 박현지
김하진 200905
김형주 박현지
남우주 230324
남예셀 민혜원
이시아 211228
이대겸 정지연
한사랑 220512
한영재 진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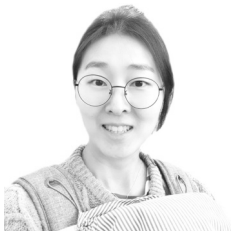
■양재
권정은 790315
김성돈 590130
김지연 851216
박선남 740206
윤석한 710716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해피맘 수료 간증



/ 한빛 성도(은현교회)

해피맘에서 두란노어머니학교 강의를 복습하고, 나눔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받았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올랐다.

첫째 아이가 만 2세였을 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와 암 투병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중학교 1학년 때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도 언제나 고했다. 대학생 때는 아버지와 많이 부딪히고, 갈등을 겪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사이좋은 부녀지간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너무 큰 충격이었다. 결국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자 되었다. 나에게는 가족이 가장 큰 안정감이었고, 행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다.

힘든 마음을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남편은 나를 공감하지 못했다.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자가 자신을 누이로 속였던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남편을 용서하고 존경해

야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돕는 배필이 되어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삼 남매에게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야”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찔함이 있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은 자랑스러워하지만, 나는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적극적이고, 당당한 딸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런 딸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보석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아버지께 편지를 쓸 때 ‘아버지의 보석에 저도 포함되니까?’라고 질문했다. 아버지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기에 그 의문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런데 두란노어머니학교 마지막 날 책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를 선물로 받았다.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했던 답변을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께 듣고 싶은 말과 받고 싶은 사랑이 참 많았다. 이제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뭇까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한다.

■ 나의 다짐 그리고 소망



/ 김에스터 성도(부천온누리교회)

〈시편〉50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다. ‘길을 곧게 닦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Way Maker’라는 찬양이 떠올랐다.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웃리치에서 받았던 영적 도전이 생각났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 유명한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스지드 네가라’고 불리는 국립모스크였다. 불과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국립모스크를 세운 것이다.

〈시편〉50편 22절에서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야!”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결말은 산산조각이 나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온 나라가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서 짝짝도 할 수 없는 영적 답답함이 있었다.

시내 외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난민학교였다. 작은 다락방 같은 공간에서 50여 명의 아이가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길을 곧게 닦는 사람

그 아이들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다. 말씀으로 영혼을 무장시키고, 도시락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소망의 나라를 꿈꾸도록 인도하는 선교사님과 현지 선생님들의 모습이 마치 〈시편〉50편에서 말하는 “길을 곧게 닦는 사람”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상과 허무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과 희망이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예배당 건물이 무너져어도 상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곳에서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Way Maker가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음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음세대를 먹이고, 축복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길을 곧게 닦는 Way Maker가 되기를 기도한다. 길을 곧게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Way Maker로 살도록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 이주민선교학교 수료 간증



/ 김미주 성도(경주M센터)

나는 경주M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섬기며 이주민선교학교 수업을 들었다. 이주민선교학교에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고, 새로운 의식 변화를 경험했다.

나는 어릴 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젊은 날에는 예수님이 늘 중심에 있었기에 그분으로 인해 가장 행복했다. 직장에서 만지 않는 남편을 만나 사랑했고 결혼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우선되고, 가장 큰 행복이었던 시절과 다른 평범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결혼생활 중에 희귀병이 나를 찾아왔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약해서 회복이 쉽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날마다 반복되는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고향을 잃은 상태였다. 그래도 조금씩 예수님께 나아가려 노력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진 탓에 힘들었지만,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사랑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러던 중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언니의 권유로 경주M센터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은 모퉁잇돌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새 생명을 찾았다. 주중에 가르치는 아이가 생각나서 문구 세트를 준비하고, 젊은 이주민에게 방한 운동화와 가방을 선물하면서 내 마음이 연애할 때처럼 설레고 행복했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은 이주민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입가에 미소가 돈다.

구원사역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린다. 더불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이주민선교학교에서 부족한 기초를 새롭게 다질 수 있었고, 새로운 꿈도 얻었다.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경주M센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도울 것이다. 배운 대로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나는 이주민사역의 작은 모퉁잇돌이 되고자 한다.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조호동 순장(김포공동체)

온누리교회의 DNA 중 하나인 ‘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어서 순장학교에 참가했다. 순장학교를 수료하면 언제 순장으로 섬기게 될지는 모르지만, 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풍성해지고 지금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순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많은 과제와 미션, 10주를 참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보다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이 더 클 것만 같았다. 이전보다 순에 대한 사랑의 폭이 좀 더 깊어지리라 기대로 순장학교 개강을 기다렸다.

기대하는 마음을 한가득 안고 순장학교를 시작했다. 여러 강사님의 강의와 성령수련회, 아웃리치, 조별 나눔 등의 프로그램들이 사역의 행복과 섬김의 기쁨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이 단순히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순예배는 세상적인 모임과 구별되어야 하고, 각자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온누리교회의 다섯 가

순장학교에서 경험한 큰 변화

지 영성인 ‘말씀’, ‘성령’, ‘공동체’, ‘선교’, ‘섬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순장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순예배에 참석했던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봤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몸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다.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순장님은 감사해야 해’라는 교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흑사라도 이런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와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순예배에 참석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순장학교는 순장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인 양육 학교이기에 순장의 무게와 역할, 순원 돌보기와 순예배를 강조하며 순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눔지를 깊이 배울 수 있다. 순장학교에서 배운 대로 늘 순장의 마음을 기억하며 순예배에 참석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 섬김의 자리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창세기〉 1장 1절의 친근한 해석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내가 과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개역한글판)였다. 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로 해석되었고, 하나님 창조의 포괄적 선포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창조과학자로서 또 새신자 등록과정 2주차 강의인 ‘창조주 하나님’ 강사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유도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 창조의 포괄적 선포가 아닌 것은 2절에 창조된 지구의 모습이 설명되고, 향후 6일 동안 분리와 채움으로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는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 옛 하사마임 베엣 하아렛츠’이다. 동일한 구절을 두고 성경별로 여러 번역이 존재한다. 〈창세기〉의 첫 단어 ‘베레쉬트’를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으로, 한글 성경은 공통적으로 ‘태초에’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아주 먼 옛날’이 아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물질세계를 만드실 때 되돌아갈 수 없는(비가역적인) 시간(chronos time)도 만드셨는데, 시간은 물질이 아니어서 창조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정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비가역적인 시간을 정하시고, 이 시간의 시작점에서 물질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옛 하사마임 베엣 하아렛츠’를 KJV에서는 ‘the heaven and the earth’로,

NIV에서는 히브리어에 충실하게 ‘the heavens and the earth’로 번역했다. the heavens를 복수로 표현한 것이다. 한글번역본에서는 공동번역과 우리말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지’로 번역했다. 우리는 흔히 천지(天地)를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이지만,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천지’보다 ‘하늘과 땅’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the heavens가 복수인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이 뜨고, 눈비를 내리는 푸른 하늘 외에도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지금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엢 2:2)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三層天)’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적 하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말 성경과 공동번역이 ‘천지’가 아닌 ‘하늘과 땅’으로 번역해서 가까이 갔지만, ‘하늘’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번역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 the earth는 ‘땅’ 혹은 ‘지구’로 번역할 수 있는데, ‘땅’은 흙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지구’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히브리어 ‘바라’는 영어로 ‘created’, 한글로는 ‘창조’로 번역된다. 히브리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인데, 이 의미를 포함하는 한글 단어가 없어서 ‘창조’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창조력은 있는 재료를 변형시켜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예를 들면, 난황과 식용유, 식초로 마요네즈를 만드는 것)이다. 동물은 창조력이 없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비가역적인) 시간을 정하시면서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다”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가 충실히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사칼럼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box’

신미자 권사
(이수공동체)

오랜 이념 전쟁 등으로 살길이 막막해진 이들이 쫓기듯 집단을 이루어 배타고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난민을 ‘boat people’이라고 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 기사화되곤 한다. 〈창세기〉

노아 홍수 때도 하늘의 샘과 땅속의 샘이 터지는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박하게 무엇인가를 타야만 했다. 당장 올라탈 수 있는 boat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홍수 이후 살아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성경에서 방주는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때와 〈출애굽기〉 2장에서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 사건에만 언급되고 있다. 같은 용어로 사용된 방주와 갈대상자는 모두 ‘box’를 뜻한다. ‘boat’와 ‘box’는 전혀 다르다. 누구나 살고 싶지만, boat에 탄 인생은 영원히 죽게 되고, box에 탄 인생은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boat와 box의 차이를 살펴보자. boat에는 동력장치가 있어서 엔진에 의지해 노를 젓고, 닻을 조정하는 등 인간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나 box에는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므로 box에 탄 인간은 이동을 위해 할 일이 전혀 없다. 떠 있는 것뿐이다. 방주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box로 내부에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있는데, 역청으로 완벽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며, 창을 내어 물은 들어오지 못하고 바람이 들어와 통풍이 된다. 옆으로 문이 나 있는 3층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뒤집히지 않는 독특성이 있다. 가로

132m, 폭 22m, 높이 13m 크기라고 〈창세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 공학자들이 제시하는 안전한 배(box)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견고성을 뜻하는 구조의 안정성(strength),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다시 평형을 이루는 힘인 복원의 안정성(stability),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성(comfort)이다. 신기하게도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한 결과, 방주의 길이와 폭, 높이 비율이 10:1.7:1로 된 것이 가장 완벽한 배의 비율이라고 한다.

오늘날 큰 배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던 배가 아닌 방주(box)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군함 중에서 가장 견고한 배인 USS Oregon(1884)과 영국 조선 기술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SS Great Britain(1843)은 완벽한 방주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box에 탄 ‘box people’은 추진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해야 할 일도 없다. 그러나 box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box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box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는 각종 생물을 돌보았다. 방주는 모두가 살기에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창조과학회에서 출간하는 서적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box people이 된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동행하기를 청하셨고, 우리는 응답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쥍살쥍 지치고 힘겨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나는 과연 어느 정도나 편한 존재일까?’ 생각하며 덜컥 넘어지고 일어나곤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복원력을 작동시키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 책 읽기와 나눔 등을 통해 감사로 하루를 물들여 간다.

신앙에세이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배우자의 상처가 오히려 큰 은혜로 다가오기도 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를 돌아보면 나는 자상한 엄마가 아니었다.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던 것 같다. 아이가 학교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맞아주는 것, 방과 후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는 것,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주는 것 정도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습을 본 남편이 “우리 아이는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엄마가 있어서 …”라고 말했다. 내가 ‘참 좋은 엄마’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 주변의 다른 엄마들

을 보면 아이들을 더 따뜻하고, 자상하게 돌보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했던 남편에게는 어린 시절 배경이 있다. 시어머니가 젊어서부터 중풍이 왔고, 몸이 약해서 항상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아이들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도 참석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가족과 운동장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는데, 남편은 혼자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슬픈 기억이 있다고 한다. 또 남편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항상 간호해 드려야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의 돌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꼭 돌봄 받는 것 같은 대리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때 한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 만약 남편이 지금정성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왜 우리 어머니처럼 아이를 잘 챙겨주지 않느냐?’며 불평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린 시

절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에 내가 아이에게 조금만 잘 해줘도 대리만족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아이에게 더 잘해줘야겠구나!’ 하고 다짐했다.

남편에게 있었던 어린 시절의 아쉬웠던 마음이 도리어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새 가정을 이루며 채워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한다. 남편의 이전 환경 속에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아버님이 ‘존(尊)’, ‘귀(貴)’, ‘부(富)’라는 한자 세 글자를 써주셨는데 남편이 그날부터 이 단어를 마음에 품었다고 한다. 남편이 다른 아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주눅 들지 않고 열등감에 쌓이지 않았던 이유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고, 부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

이다.

“네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네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네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사 43:4~5).

남편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어왔기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적용되면서 항상 따뜻함이 흐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되면, 그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선물과 면류관이 된다. 가족에게 가장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상처는 선물이자 면류관!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3:00 선교관 301호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희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르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잡지 <새벽나라> 기획 및 취재, 편집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접수: 4월 7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창조과학 아카데미 모집
일시: 3월 31일~4월 28일 매주 주일 오후 7시~9시
장소: Zoom 실시간
학점: 5주 과정 OBC 1학점
회비: 2만 원
문의: 02-3215-353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희(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희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희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관사(010-3285-172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진,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채용 공고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학력: 2년제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제528기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모집
일시: 4월 6일~7일(1박 2일)
장소: 경기도 광주시 진새골온누리교회 사랑의집
대상: 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부부
문의: 02-444-5882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골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희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간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간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신나는 노래를 통해 배우는 성경 이야기

고고바이블송



1. 천지창조송



2. 노아의 방주



3. 홍해를 건너라

성경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요!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다윗과 다니엘 등 구약을 넘어

예수님과 열두 제자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노래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격주 수요일마다 **퐁당**을 통해 신곡 애니메이션이 공개됩니다.



퐁당 다운로드



아이들이 재미있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고고바이블 (한국어, 영어)도 **퐁당**에서 만나보세요.

